

밀레 111주년 창립 기념 특별 행사 실시

- 밀레 창립 111주년 맞아 웰빙 쿠킹클래스 및 1+1+1 특별 사은 행사 실시
- 1930년 제작된 목조형 세탁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등 히스토리 전시회 진행

독일 명품가전 밀레(밀레코리아 대표 안규문. www.miele.co.kr)의 한국지사 밀레코리아는 올해 7월 창립 111주년을 기념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쿠킹클래스 및 ‘1+1+1’ 특별 사은 행사, 히스토리 제품 전시회를 실시한다.

일반 고객이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이번 특별행사는 오는 27일~29일까지 3일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역삼동 밀레 액티브키친에서 요리전문강사를 초빙해 전기 및 스팀오븐을 이용한 웰빙 쿠킹클래스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쿠킹클래스는 스팀오븐을 이용한 떡 케이크를 비롯해 나물 등 한식위주로 진행되며 쿠킹클래스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은 전문요리강사가 직접 요리한 고급 요리를 즐길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요리를 배울 수 있는 ‘밀레 이지쿠킹 DVD’와 ‘앞치마’ 등 사은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참가방법은 밀레의 매장을 방문해 고객카드를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응모하면 된다.

또 ‘1+1+1’ 특별 사은 행사는 7월 한달 간 밀레 세탁기, 진공청소기, 식기세척기, 오븐 등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제품 구입시 증정품에서, 추가로 사은품이 증정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밖에 밀레 가전제품의 오랜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1930년에 제작된 목조형 세탁기에서 현재의 금속형태로 외형이 바뀐 세탁기, 밀레 최초의 진공청소기와 수동 다림질기 등 최대 100년 전에 만들어진 제품을 전시하는 ‘히스토리 전시회’도 쇼룸에서 진행된다.

밀레코리아 윤일숙 마케팅팀장은 “이번 행사는 밀레 창립 111주년을 맞아 그 동안 밀레에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고객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명품가전으로서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행사배경을 설명했다.

밀레는 1899년 밀레와 진칸 두 사람이 공동 설립한 가전회사로, 창업 이래 111년 동안

밀레와 진칸 두 가문이 4대째 대를 이어 공동 경영을 하고 있다. ‘평균 제품 수명 20년’이라는 탁월한 내구성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가전제품의 벤츠나 BMW로 통하고 있다. 국내에는 지난 2005년 6월에 밀레의 한국지사인 밀레코리아가 설립됐다.

문의: 02)3451-9451~2, 홈페이지: www.miele.co.kr

-